

“쇼” 비판에 막내린 민주 ‘회초리 투어’

대전·충남 방문서 끝내...가는 곳마다 쓴소리 문 “냉정한 평가로 혁신·새정치 설계도 마련”

대전 패배에 대한 국민의 쓴소리를 들었으며 시작한 민주통합당의 ‘회초리 투어’가 지난 18일 대전·충남 방문을 끝으로 중도에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광주·전남과 부산·경남을 다녀왔지만 당 안팎에서 ‘보여주기식 이벤트’라는 냉소적 반응이 일자 전국을 돌리기로 한 당초 일정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문화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대전시당에서 비대위 회의를 연 뒤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대전 패배에 대해 국민을 향한 사죄와 참회의 뜻을 담아 삼배(三拜)를 했다.

오후에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마련된 ‘회초리 간담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당원·시민들은 대전 패배를 놓고 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대선 패배에 대한 국민의 쓴소리를 들었으며 시작한 민주통합당의 ‘회초리 투어’가 지난 18일 대전·충남 방문을 끝으로 중도에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광주·전남과 부산·경남을 다녀왔지만 당 안팎에서 ‘보여주기식 이벤트’라는 냉소적 반응이 일자 전국을 돌리기로 한 당초 일정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후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는 “내주부터 대선평가위, 정치혁신위, 전대준비위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키려고 한다”며 “철저하고 냉정한(대선) 평가를 바탕으로 민주당의 혁신과 새정치 실현의 설계도를 꼭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내주부터 대선평가위, 정치혁신위, 전대준비위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키려고 한다”며 “철저하고 냉정한(대선) 평가를 바탕으로 민주당의 혁신과 새정치 실현의 설계도를 꼭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문화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회초리 민생 투어’ 마지막 일정인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회초리 민생간담회’를 열어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대선평가위원장 한상진 교수

정치혁신위원장 정해구 교수·전대준비위원장 김성곤 의원

민주통합당의 대선평가위원장 및 정치혁신위원장에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새 지도부 선출 방식 및 시기 등을 결정하고 전당대회 과정을 관리할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중도 성향 4선인 김성곤(여수 갑) 의원이 선임됐다.

민주당 비상대책위는 지난 17일 밤 삼아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으며, 18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한 명예교수는 대선 기간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국정자문단으로 활동했으며, 정 교수는 문재인 전 대선 후보 캠프의 새정치위원회 간사를 맡아

새정치공동선언 마련 작업 등을 주도했다.

대선평가위 부위원장은 3선의 전병헌(서울) 의원, 정치혁신위 부위원장은 4선의 이종걸(경기) 의원, 전대준비위 부위원장은 3선의 최규성·이상민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

전 의원은 정세균계, 이종걸 의원은 채신모임 소속의 비주류 그룹으로 분류되며, 최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계인 민평련 출신이다.

이상민 의원은 대선 당시 문재인 전 후보 캠프의 공감2본부장을 맡았으나 계파색은 얻은 편이다.

오영식 의원의 사의 표명으로 공식

이전 전략홍보본부장에는 재선의 민병두(서울) 의원이 임명됐다.

대선평가위는 대선 평가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을, 정치혁신위는 계파정치 청산 등 당 혁신 방안 마련 작업 등을 각각 맡게 되며, 위원회별로 내·외부 인사를 포함해 9~10명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비대위는 20일 저녁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각 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르면 21일 인선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선평가위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정도가, 정치혁신위는 절반 정도가



한상진 교수, 정해구 교수, 김성곤 의원

기득권 내려 놓겠다던 국회의원 3명중 1명꼴 ‘검직’ 변호사·객원교수 등 광주·전남도 5명

지난 4·11 총선과 12·19 대선 기간 정치세신을 한복소리로 외치던 국회의원들의 검직 관행이 19대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19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32%인 96명이 의원직 외 한 개 이상의 다른 일을 겸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는 의원 197명 중 42.8%인 127명이 겸직을 했던(2011년 6월 기준) 지난 18대 국회보다 다소 낮은 수치다.

이들은 변호사·의사·교수·업체대표·사외이사·각종 협회 이사

장직을 겸하고 있었으며 많게는 9개 보직을 겸한 의원도 있었다.

정당별 겸직의원 수를 보면 새누리당이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주통합당 39명 ▲진보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이었다.

업종을 보면 교수직을 겸한 사람은 32명, 변호사직은 21명이었다.

광주·전남에선 5명의 의원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주선·박지원·우윤근·임내현·주승용 의원 등이었다.

임 의원은 변호사와 광주·전남 정책포럼 이사장직 등 2개의 직을 겸하고 있었다. 우윤근 의원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박주선 의원은 변호사, 박지원의

원은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 겸 비서실장, 주승용 의원은 대한통운 여수출장소장직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보면 법조계를 겸한 사람은 2명, 교육계·경제계·문화예술계는 각각 1명씩이었다.

국회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의원 겸직 금지 등 개혁안을 쏟아냈지만 입법화 단계엔 이르지 못했다.

그동안 일부 의원들이 교수·기업체 사외이사 등을 겸직하거나 직접 변론 활동을 하는 등 국회의원직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해 이익을 추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생활 한달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 새정치·세력화 고심 4월 재보선 출마 안할 듯

제18대 대선 직후 미국으로 떠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는 지난 11월 23일 후보직 사퇴 당일엔 캠프 제2막을 열기 위해 앞서 새롭게 제시할 정치비전과 구체적인 정치세력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2월 17일 참모들의 오찬에서 “5년 뒤 시대정신

은 다를 것이다.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그에 앞서 11월 23일 후보직 사퇴 당일엔 캠프 제2막을 열기 위해 앞서 새롭게 제시할 정치비전과 구체적인 정치세력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후보로서 한계에 부딪혔던 안 전 교수는 연구소나 재단

활동, 신당 창당, 민주당 입당 등 정치 세력화를 위한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교수의 미국행은 한두 달 일정으로 알려져 애초 귀국 시점은 2월 말~3월 초로 전망됐지만,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 정부 출범, 민주당 재편 등을 충분히 지켜보고 3월 말이 지나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전 교수는 향후 행보에 대해 서 어떤 계획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상당수 측근은 일단 안 전 교수가 4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대선 수개표 요구 바람직하지 않아”

문재인 전 대선후보 트윗 글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제18대 대선 재검표(수개표) 요구와 관련, “많은 분들이 수 개표를 위한 당선무효소송 제기를 간절히 요청하셨는데, 응하지 않아서 미안하다”라며 “바람

직하지 않은 일이고 소송을 제기할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장 승복이 안 되더라도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이제 새로운 출발을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14일 트위터에 “어젯밤

수 개표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구기동 집 앞에서 열리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 제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그분들의 답답하고 간절한 심정을 풀어드릴 수 있을지 마음이 무겁다”라고 쓴 지 나흘 만에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13학년도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신입생 모집

- 1. 석사과정(아간)**
 - 모집전공: 공공행정전공, 자치행정전공
 - 수강지역: 광주반, 여수반, 남악반
 - 원서 접수 기한
 - 특별전형(면접): 2013. 1. 31(목) 18:00 까지
 - 일반전형(면접 및 필답고사): 2013. 2. 14(목) 18:00 까지
 - 전형별 지원자격은 홈페이지 참조바람
- 2. 최고정책과정**
 - 모집대상: 정치인, 법조인, 고위공무원, 경영인 등
 - 원서접수 기한: 2013년 2월 까지 수시 접수
 - 수업방법: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 과정 (매주 월요일 야간강의)
- 3. 관리사과정**
 - 모집대상: 공무원, 기업체 경영인 및 임직원, 각종 사회단체인
 - 원서접수 기한: 2013년 2월 까지 수시 접수
 - 수업방법: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 과정 (매주 목요일 야간강의)
- 4. 문의사항**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실
 - 전 화: (062)530-5196, FAX: (062)530-2266
 - 홈페이지: http://cnugpa.kr

미성빌딩임대

남구 봉선동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유동인구 풍부!
남구 봉선동 남양후튼 사거리 핵심상권!
25M대로변의 편리하고, 광고효과최고!

임대 총 1,2,5층 각 100명, 52명
관장업종 병,의원약국, 금융기관사무실체인점

임대문의 에스온 공인중개사무소(빌딩상가전문중개)
C.P: 016-261-2305
TEL: 062/673-7120 / 070-7763-7120

경매투자

-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단독/공동투자 가능
- ▶ 투자대비 고수익 가능

NPL투자

- ▶ 낙찰받을 확률 99%
- ▶ 양도소득세 1%
- ▶ 소액투자 가능
- ▶ 단기내 투자금 회수

★특수비법 배우실 분 상담★
(주)오현경매 H.010-3605-5000